

공모 선정으로 농촌 활력 탄력

무주군,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 8억원 등 총 10억4000여만원 규모

무주군이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을 비롯해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등의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돼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총 사업비 8억여 원이 투입되는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시행자 구천동농협)'은 농산물유통(APC) 기능보완과 소규모 상품화 시설 구축, 공동선별과 출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시장교섭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무주군은 실천면 신지유통센터에 수박과 포도(사인머스켓) 집하장 및 선별장을 신축해 해당 품목 재배 농가의 유통비를 크게 절감시킬 계획이다.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

(시행자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는 도비 1억1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농·식품, 유통·가공, 6차 산업, 농촌관광,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일자리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2022년에도 농촌 활력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발굴하는 일자리 중간지원조직 거점 구축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는 이 사업을 통해 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서울시 농촌일손지원 사업 추진 기관인 (주)푸마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시민들의 일자리와 농촌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도비 1천여만 원을 포함해 2천1백만 원의 사업

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적상면 증가마을과 부남면 장안마을 주민 대상 평생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은 이 사업이 도·농 융합상생시대에 대응하고 마을 공동체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사업들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소득농업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주민, 마을, 소득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농촌활력과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접수

장수군, 1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서 양파·마늘 대상

장수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양파와 마늘에 대한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2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라북도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도 8개 지정품목인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하반기 지원품목은 양파와 마늘로 재배 농가는 1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대상지는 시·군 통합마켓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8개 품목에 대해 계통출하를 약정하고, 약정기간 내 출하한 지정 농산 품목의 시장가격이 도에서 정한 기준가격 보다 하락할 시 차액분의 90%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장수군은 20년도 출하한 양파, 노지감자, 가을배추 3개 품목에 대해 총 4억 700만원의 지원했으며, 21년도에 출하한 양파, 노지감자, 생강 3개 품목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총 9억 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수군에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주요농산물 8개 품목 이외에 장수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수군 유통가격안정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사업과 더불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군 유통가격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군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농업 소득 감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호박고구마 큐어링 기계화시설 지원 '호영'

진안군은 국내육성 품종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 대상으로 큐어링 저장 시스템을 도입해 호영을 받고 있다.

이번 큐어링 저장 시스템 도입은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마령면 호박고구마 재배 단지 내 5개 농가의 기존 저장 창고를 활용해 전문 설비를 갖췄다.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해 큐어링 처리는 꼭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시설이 없으면 적절한 환경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기존 재배 농가들의 불편함이 많았었다.

하지만 큐어링 저장 시스템의 공급으로 농가들은 손쉽게 온·습도를 기계조작하며 아들이 작업과 저장에 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어, 고구마 수확 후 관리가 편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8대 무주군의의회 마지막 정례회 돌입

12월 15일까지 군정성과 총결산

무주군의의회(의장 박찬주)가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8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그동안의 민선7기 군정성과를 총결산하는 회기인 만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모든 일정

에 특별히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찬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침체된 지역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보다 냉철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27건의 일반의안 이외에 2021년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

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의원발의 안건에는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있다. 문은영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윤정훈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유송열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해양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이다.

정례회 첫 일정으로는 16일 일반의안들에 대한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안건들은 이후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의결한다.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은 202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에는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 본예산안 등 각종 예산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어 12월 15일 예산안 의결 후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의회가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무주군, 정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선정

무주군이 '2022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총 사업비 10억 원, 군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 및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건물에 탄소중립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은 안성면 행정복지센터의 탄소중립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선도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안성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및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내·외벽 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교체, 유류부지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감축목표(32%)를 달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일상회복 주민자율참여방역단 운영

무주군은 지난 15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주민자율참여방역단'을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상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를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민자율참여방역단은 지역 정보를 잘 알고, 실정에 맞는 홍보와 안내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총 35명이 참여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들 대상으로 기본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주로 하게 되며, 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요시설 방역,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 행위 계도,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방역단의 활동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하게 주민에게 알려야 할 행정사항이나 안내사항이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은 감염 확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중점관리 시설 및 집단감염 발생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을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추진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의회 조준열 의원 대표발의 '효행 장려·지원 조례' 추진 박차

진안군의의회 조준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이 전통문화유산인 효에 대한 효행장려, 교육 지원 등 '효'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제256회 진안군의의회 임시회에서 의

결된 이 조례는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진안군에 안정적 '효' 문화 정착을 유지를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진안군 효행장려기본계획 수립, △효행 교육 및 홍보 △효의 달과 효의 날 지정, △부모 등 부양에 대한 지원 등 효행 장려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청소년 및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 효 인성 교육 실시와 더불어 매년 1회 효행 관련 축제 또는 행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어버이날에 효행자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확보

진안군은 부귀면 황금지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78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12억 원(국비56억 원 도비22억4천만 원 군비33억6천만 원)을 투입해 황금저수지 도로법면의 암절개지(낙석 발생지역)를 정비하게 된다.

부귀면 황금리 황금저수지는 도로 절개지 법면의 암비탈면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붕괴 및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발생 시 붕괴 위험이 높아 인근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이다.

이로 인해 작년에 위험지구로 지정고

시 됐으며, 올해 신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를 거쳐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낙석 발생 및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해빙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등 안전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